



“빵꾸똥꾸”는 이제 그만 옥희로 기억해 주세요

KBS 2TV 4부작 ‘백희가 돌아왔다’ 로 돌아온 진지희

“섬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 아직 피부에 와 닿는 실감은 못하고 있는데 기사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이렇게 인터뷰 요청도 오고 하니깐 좋게 봐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기존에 편성되었던 드라마의 제작이 늦어지면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편성된 KBS 2TV 4부작 드라마 ‘백희가 돌아왔다’가 ‘깜짝 돌풍’을 일으켰다.

한때 섬마을을 주름잡았던 주인공 백희(강예원 분)가 신분을 세탁하고 18년 만에 딸 옥희(진지희)를 데리고 나타나면서 옥희의 친부가 누구냐를 놓고 벌어지는 소동을 담은 이 드라마는 13일 10.0%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지붕뚫고 하이킴’(이하 ‘하이킴’)의 ‘빵꾸똥꾸’에서 한 꺼풀 탈피한 듯한 진지희(사진)를 14일 전화로 만났다.

비진도, 통영, 강화도 등을 오가며 촬영하고 있다는 진지희는 “급하게 제작되면서 대본 리딩도 많이 못 하고 시작한 데다 제가 너무 막내여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입을 열었다.

극 중에서 ‘가솔수녀’가 된 진지희는 “실제로는

모범생 쪽에 가까웠지만 자기 할 말을 다 한다는 면에서는 옥희랑 비슷한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옥희처럼 대들면서 하지는 않는다”며 깔깔 웃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옛이지만 당차다. 수줍은 듯하면서도 질문마다 망설임 없이 일목요연한 답이 돌아오는 모습은 이 열일곱의 소녀가 경력 13년 차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진지희는 “실제보다 화면에 통통하게 나와서 스트레스가 좀 있었다. 다이어트를 해서 3~4kg 정도 뺐다”며 “먹고 싶은 게 많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달라 보인다고 해주시니 기쁘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극 중에서 아빠 후보 세명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진지희는 “처음에는 그저 내가 맡은 걸 열심히 해야지 하고 촬영장에 갔는데 대본도 너무 재미있고 아빠들도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즐겁다”고 털어놨다.

진지희는 “아빠들 중에 누가 제일 좋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 데 다 좋지만 저는 재밌는 사람을 좋아해서 인교친 아빠를 뽑겠다”며 “너무나 자상하고 잘해주신다. 그리고 잘생겼다. 그렇다고 다른 아

빠들이 잘생기지 않았다는 건 아닌데...아 너무 어렵다”고 깔깔거리며 소녀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까지도 “나는 진지희인데 왜 사람들이 ‘빵꾸똥꾸’로만 부를까 하는 고민을 했다”는 그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알아봐 주셔서 감사했다”고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진지희는 “사실 ‘하이킴’ 이후로 별다른 히트작이 없기도 했는데 이번 드라마로 ‘옥희’로 기억해주시지 않을까”라며 웃은 그는 “이 캐릭터에서 벗어나겠다고 뭔가 파격적인 걸 하기보다는 제 나이에 맞게 차근차근, 저만의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당찬 각오를 전했다.

‘하이킴’에 함께 출연했고 최근 MBC TV ‘복면가왕’에 출연해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 서진애와는 지금도 자주 연락하며 서로 응원하는 사이. ‘백희가 돌아왔다’를 보고 서진애가 문자로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진지희는 “언니가 ‘하이킴’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잘해서 예전부터 ‘복면가왕’ 같은 데 나가라고 권했었다”며 “방송 보니 너무 잘하더라. 울컥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향뉴스



“시청자를 속여라” 영화 ‘트릭’

주연 강예원 “살벌한 추위에 고통” ... 내달 17일 개봉

영화 ‘트릭’의 여주인공 배우 강예원은 “지금까지 찍은 작품 중 가장 힘든 영화였다”고 촬영현장을 떠올렸다. 강예원은 ‘트릭’ 제작보고회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트릭’은 휴먼 다큐멘터리 PD ‘석진’과 시한부 환자 ‘도준’의 아내 ‘영애’가 명예와 돈을 위해 ‘도준’을 놓고 은밀한 거래를 하는 대국민 시청률 조작 프로젝트를 그린 영화다.

강예원은 이 영화에서 방송에 중독돼 시한부 환자인 남편을 시청자들 앞에 세우는 ‘영애’ 역을 맡았다.

시한부 환자의 아내라는 배역에서 오는 적지 않은 감정 소모만큼이나 배우를 힘들게 한 것은 바로 강추위였다.

지난해 겨울 혹한 속에 촬영한 탓에 겹옷을 세 개, 네 개 끼고도 추위에 떨어야 했다.

‘석진’ 역의 이정진도 “나는 매년 겨울이 추운데 심지어 한해 한해 더 추워지더라”며 “살벌”했던 촬영현장을 기억했다.

이창열 감독은 “영화가 서스펜스 드라마 장르다 보니 배우들이 섬세한 감

정을 표현해야 하는데 너무 추워서 얼굴이 얼었다”며 “그래도 배우와 스태프가 혼연일체로 많이 도와줘서 행복하게 촬영했다”고 말했다.

‘날 보러와요’의 상대역인 이상윤에 이어 ‘트릭’의 상대역인 이정진의 직업도 PD.

강예원은 “‘날 보러와요’ 속 이상윤은 조금 더 착한 느낌이지만, ‘트릭’ 속 이정진은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입장”이라고 둘을 비교하며 웃었다.

2012년 ‘피에타’ 이후 4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는 이정진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시청자를 위해 달려가는 PD의 모습을 1등만을 좇는 우리 사회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영화에서 ‘도준’ 역을 맡은 배우 김태훈은 “그동안 아픈 역할을 많이 했는데 (연기하기 전) 어떻게, 왜 아픈가를 많이 고민한다”며 “‘트릭’에서는 주변의 상황 때문에 고통스럽고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이겨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트릭’은 7월 17일 개봉한다. 94분. 15세 관람가. /연향뉴스

“강제성 없는 성관계...” 20대女, 박유천 고소 취하

성폭행 혐의로 논란이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이 15일 오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강남구청에 정상 출근했다.

박유천은 이날 매니저 여려름을 대동하고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강남구청에 출근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별 다른 말 없이 급히 들어갔다. 전날 그는 물러난 취재진을 피해 병가를 냈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 A씨는 이날 새벽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초 보도된 13일부터 오늘 소송 취하 보도까지 경찰 측의 공식적인 사실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소 건은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조차 없이 한류스타란 이유로 한 매체를 통해 고소 접수 사실만을 토대로 실명 보도됐고 그날부터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고 호소했다.

고소장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허위 사실과 확대 해석이 난무해 하루만에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가 실추와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무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 조사 요청이 있으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연향뉴스

TV 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기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스쿨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K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	00 인간극장 스페셜	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옥중화)(재)	00 닥터 365 05 토크콘서트 화통(재)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문벌 로맨스)(재)	00 SBS 12 뉴스 50 닥터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보물섬) 55 감성애니 하루 (재)		30 MBC 글로벌 나눔 프로젝트 LOVE 캘리지 2 스페셜	20 자연의 신비, 슈퍼센스 55 TV블로그 품지락
2	00 이웃사이다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0 텔레노스터(재) 25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스페셜 55 텔레노스터(재)	00 세상발전 유레카 55 닥터365
3	00 성로병사의 비밀 (재) 55 튜튼생활체조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싸이월드(재) 55 파워배틀 와이자카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55 감성애니 하루(재)	25 UEFA 유로 2016 하이라이트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안녕! 괴발개발 30 터닝메카드 W	00 MBC 이브닝뉴스	00 아이엠 뽀니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특 남도에 살아리라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비타인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데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55 감성애니 하루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	00 수목미니시리즈 (운빨로맨스)	00 드라마 스페셜 (만파라)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애니지 혁명 세상이 바뀐다)	10 해피 투게더	10 능력자들	10 자기야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댓뮤직(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 24 50 UEFA 유로 2016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세계전문 아틀라스 (레나강 발원지를 찾아서) 06:10 세계의 눈 07:00 지파이터스(재) 07:30 꼬마버스 타요(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당동당 유치원 1~3 08:45 방귀대장 뽀롱이 09:00 공지와 친구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달라졌어요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우렁쌈장과 상추전)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통일의 길 12:40 역사채널e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3:50 이팝 스페이스 정글 14:00 코코몽2 14:30 최강전사, 미니특대(재)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꼬마 철학자 휴고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6:00 꿈과도 친구들(재) 16:30 방귀대장 뽀롱이(재) 16:45 당동당 유치원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너스!~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신다 (혈관나이를 젊게! 추억여행) 20:40 다큐오늘 (칼 말리는 사람들)	20:50 세계테마기행 (알프스가 품은 지상낙원, 라우터브루넬) 21:30 한국기행 (여름 4부 적벽 위 삼촌사, 동북호)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기적의 가위바위보 합시다)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공고에서 온 엄마 미미 걱정 말아요 그대) 24:05 역사채널 6(재)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6일 (음 5월 12일 己巳)
子	48년생 보기보다는 의외로 복잡하고 난해한 판도를 이루고 있다. 60년생 징후가 보일 때 즉시 손을 써야 제대로 효과를 본다. 72년생 작은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84년생 간절히 희구한다면 얻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5, 30	42년생 변변치 못한 결과 앞에서 상심해 하는 형상이다. 54년생 매우 희망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리라. 66년생 잡다한 손익에 얽매이지 말고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다. 78년생 모두 헤아릴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31, 38
丑	49년생 궁극적으로 정리되거나 통렬할 수도 있는 마당이다. 61년생 해결의 실마리를 겨우 찾게 될 것이다. 73년생 강하고 갖을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임하라. 85년생 과유불급이니 조절할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9, 17	43년생 관계의 인식에 있어서 유연함이 절실하다. 55년생 냉철한 이성으로서 임하라. 67년생 순탄치지 않다면 내면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79년생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지는 않나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50, 52
寅	50년생 기만히 뒤편 될 일을 가지고 괜히 손에 버리게 생겼다. 62년생 양이 많아지면서 복잡한 환경들이 조성된다. 74년생 절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86년생 당황하면 바로 코앞에 두고도 못 찾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76	44년생 흑백을 분명히 가리지 않으면 난처해지겠다. 56년생 길성의 물이 가득 괴어 있는 계기이다. 68년생 이치에 맞지 않으면 속히 거두어들이는 것이 백번 낫다. 80년생 분명히 장고한 후에 결정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91, 37
卯	51년생 전혀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63년생 보편적 가치가 있느냐 여부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75년생 거두어 들이는데 있어서 세어 나가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자. 87년생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행운의 숫자 : 10, 89	45년생 살아 놓은 기반으로 인해 수월해진다. 57년생 바라기는 하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69년생 뜻 밖에 나타난 경쟁자가 있을 수 있다. 81년생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3, 46
辰	40년생 귀인이 보이느니라. 52년생 생산적인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다. 64년생 회귀하여 왔던 버를 성취하게 된다. 76년생 상대가 원하는 바에 따라야 의미가 있느니라. 88년생 황량한 대지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대국이다. 행운의 숫자 : 79, 92	46년생 순서와 체계가 절실히 요청되는 과정상에 놓여 있다. 58년생 일정하지 않으니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낫다. 70년생 필요 하다면 소급해서 적용해도 아무 탈이 없으니라. 82년생 내면의 질을 보고 판단하라. 행운의 숫자 : 73, 60
巳	41년생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것이 타인에게는 필요로 할 수 있다. 53년생 세심하게 꿰질 일이다. 65년생 거울과 같아서 한 번 금이 가면 회복할 수 없다. 77년생 완벽하지 않다면 불리하다. 89년생 상대의 정황을 헤아릴 줄 알라. 행운의 숫자 : 27, 06	47년생 목적이 부합하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59년생 좀 더 큰 구도에서 다루야 할 문제점이 틀림없다. 71년생 바다에 나서 극한 상황을 이룰 수도 있다. 83년생 초여름의 소나기와 같은 기복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4, 6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